



피치,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시사

이정환 연구원

- 2012년 들어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됨에 따라 일부 유로존 국가들의 경우 조만간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으로 보임.
 - 피치는 국제 신용평가기관 중 가장 먼저 일부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을 낮출 것으로 예상됨.
 - 피치는 1월 중 이탈리아의 국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으며, 2011년 말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분류했던 스페인, 벨기에, 슬로베니아, 키프로스, 아일랜드에 대해서도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함.
 - 다만, 프랑스의 경우 올해 안에 신용등급을 강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.
 -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신용등급 강등 여부는 1월 둘째 주와 2월 초의 국채발행 성공에 달려 있는 것으로 분석됨.
 - S&P는 1월 말 열리는 EU 정상회의의 결과를 보고 신용등급을 조정할 것으로 보임.
 - S&P는 2011년 말 유로존 국가에 대해 신용등급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, 아직까지는 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음.
 - 무디스는 2012년 1/4분기에 신용등급을 조정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신용등급 강등이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.
- 피치는 1월 10일 이탈리아의 위기해소안 부재, 막대한 부채, 높은 국채발행 금리로 인해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1월 말경에 강등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함.
 - 유로존 체제의 최대 수혜자인 독일이 남유럽 국가들을 지원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재정 위기 해결이 지연되고 있음.
 - 독일의 영향력이 큰 유럽중앙은행(ECB)도 재정위기국 국채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는 상황임.

- 이탈리아의 2012년 국채 만기 규모는 3,600억 유로이며 이 중 45%는 2~4월 중에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다.
 - 이탈리아는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에 대해 만기를 연장하면서 연명하고 있으나, 워낙 많은 물량이 만기가 된 데다 투자자들이 이탈리아의 상황에 대해 불안을 느낌에 따라 만기 연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.
 - 이탈리아는 2011년 12월 29일 85억 유로 상당의 국채발행에 나섰으나, 70억 유로 규모의 국채만 매각됨.
- 이탈리아의 높은 국채금리는 위기 심화를 의미함.
 -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1월 10일 7.13%를 기록하였으며, 독일 국채와의 금리 스프레드도 5.25%p로 벌어짐.
 - 이탈리아는 2012년에 국채발행을 통해 총 4,400억 유로의 자금을 조달할 방침이나 현재의 국채금리를 고려하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.
- 피치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4%p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경제성장률이 0%에 근접하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상황은 이미 위험수준을 넘어섰다고 분석함.
 - 독일과의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1.5%p로 하락하고 경제성장률이 1.5%로 상승한다 할지라도 이탈리아의 부채상환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.

(Wall Street Journal 1/10, Bloomberg 1/10)